

등록금 협상 '난항' ... 새국면 전개

서울 과회장 7명 단식 진행, 4·5일 민주남부 찬반 총투표 예정

용인 계속되는 협상속에 5일 학내 결의대회



1만3천 외대인 요구인 관철과 민주남부 승리를 위한 서울캠퍼스 과회장 단식단이 지난 5월 29일(수) 봉문광장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캠퍼스 이준우 4.5일 2학기 민주 남부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캠퍼스 △등록금조절위원회 구성 △재단헌입금 축소 △등록금 적정 수준으로 인하 등의 공동 요구안을 바탕으로 '교육정책화'의 고지를 향해 달려나간 1학기 등록금 협상은 그간 투쟁의 필기와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분주하다.

○ 서울캠퍼스는 지난 29일(수) 예정되어 있던 협상이 대한국의 준비비로 인해 다음날 30일(목)로 연기됐다. 그러나 중 대외국인 학생회가 민주남부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2차 협상을 유예하는 사태가 벌어져 학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때 학생회는 '일련의 행동들'을 자제하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학생회에 발송했다. 이 공문에 대해 학생회는 '학생회 학생들(상정·정명)은 "지금까지 협상을 조속히 끝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회는 지난 투쟁 평가, 현재 상황, 민주남부 성사, 앞으로의 투쟁방향과 관련하여 재2차 외대 캠퍼스회의를 열었다. 또한 같은 내용으로 30일(목) 노년학생들 2학기 성사 보고대회 및 외대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대한국과의 협상이 결렬돼 29일(수)부터는 미얀마·중국·인도네시아·프랑스·네덜란드·미국 등 7개 과회장이 1만 3천 외대인 단식농성에 들어갔으며 민주남부 성사 여부를 묻는 외대인 총투표가 4일(금) 5일(토)이었던 진행됐다.

또한 과회장 단식농도와 함께 각 과에서 일일단식 구성이 계획되고 있다.

○ 용인캠퍼스는 지난주 두번에 걸친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이번주에도 4대 공동요구인 100대 요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주부터는 '학자선전단'이 꾸려지고 5일(수)에는 학내집회가 열리는 등 1학기 등록금투쟁(투쟁)가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기묘하고 전기가 될지 모를 상황이 예상된다.

또한 내일(4일) 열리는 학내총회에서는 그간 협상을 진행하면서 4대 공동요구인 100대요구안중 합의된 사항과 정점으로 떠오르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마지막 '힘줄'을 위한 결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한편 학생회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서는 모성(문인)·사자·이준우 군은 '이번주부터는 계속되는 협상결과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2학기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은진·정명주 기자



외대발전 남부

▲이제 곧 방학이다. 정신없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 뜨거운 여름방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지나지 않아 반갑지 않은 손님인 가을이 찾아올 것이다. 등록금 고지서, 이것 덕분에 나는 한참이나 부모님앞에 면목이 서지 않을 것이다. 자식교육에는 무조건적인 부모님은 부담없는 등록금에도 아무 말씀 안하시고 빚까지 얻어가며 고이 납부하실 것이다.

▲대학들은 팔팔한 여름을 맞아 더욱 화끈해진 머리와 굳어진 허리를 일으킨 부모님. 이런 부모님에게 더욱 동정을 지우는 것은 영화나 다름없다. 학부모는 자녀를 위해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는 77.5%를 정점을 올려주고 재단의 몫까지 일부 줄여주는 부담한 등록금일 것이다.

▲내 부모 아버지께 대학에 온 것이 아니다. 큰 학문을 배우고 세상을 옮겨 보는 법을 배우러 이곳에 왔다. 이런 나와 내 부모의 공통의 소망이었고 때문에 등록금이란 뉘앙스를 낸 것이다. 학교에 반한 건물을 세우는 것도 총지관 재단의 몫까지 다려내고 내면이 아니다. 볼 볼하고 여름에 들고 거울에 추운 도서관, 맛있는 식당, 불편한 책상, 수업중 떨어지는 형광등... 이런 환경에 외라고 들어온 학교가 아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론을 배운 과장에서는 7명의 과회장이 요구한 관철과 민주남부승리를 위한 단식을 시작했다. 그들의 절박함은 바로 외대인 모두의 심장이었다.

서울 캠퍼스에서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총학생회 부담하게 받았고 재기하는 39만6천원을 재한 예산으로 2학기 등록금을 총학생회에 납부하게 하는 투쟁을 준비중이다. 재단의 몫을 내 부모의 등록금에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 등록금은 정점으로 외대발전에 의지가 있는 곳으로 남부대학이 할 것이다.

한승주

5·31 교육개혁안 분쇄 결의

한총련, 교육부 항의 방문

지난달 31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산업대에서 '망국적 5·31 교육개혁안 분쇄와 부패정권 반교육정권 김영삼정권 타도를 위한 청년학생 결의대회'가 있었다.

'신한국당 부정부패 척결과 대안자금 공약을 위한 한국대학학생회연합(한총련) 구국단식농성단'과 서울지역대학학생회연합(서울연) 소속 대학생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는 5·31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 1년이 되는 날을 기해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서울동부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동총련)의 회장 김종욱(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정부가 미군정에 1년에 4조원(1인당 10억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비해 학생들에게는 1년에 700억원(1인당 700원)만을 지원한다'며 비판적인 교육정책을 규탄했다.

이어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울연)의 회장 박병인(연세대 총학생회장)은 '교육개혁안은 정권이 지난해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몰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교육부 직원들을 폭력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다'라며 강도있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망국적 5·31교육개혁안 분쇄와 부패정권 타도를 위한 부패정권 타도'에서 한총련의 공동 학생 대의 5·31교육개혁안에 대한 한총련 결의서를 전달한 뒤 교육부 항의방문을 하던 도중, 본교 학생 5명이 연행됐다가 풀려났다.

허윤숙기자

폭력시위 교사혐의로

본교 조태현군 구속

지난 30일(수) 오후 12시경 본교 신촌캠퍼스와 과회장 조태현(국)이 지난 3월 22일(수) 세동에서 있었던 동총련 연대집회와 관련된 '폭력시위 교사혐의'로 구속됐다.

조태현은 같은 과 조준우(1)군 구속 이후 배후조작 교사혐의로 3월 30일(토) 수배를 받았다. 이후 1개월 이상의 수배생활 끝에 5월 5일(일) 자진출두로 1차 조사를 받은 결과 검찰측은 뚜렷한 혐의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사건을 처리해줬다. 그러나 중 2·3차에 걸친 조사를 받다가 구속된 것이다.

한편 조준우는 강릉중지소에서 성

동경출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방과에서는 과회장 석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꾸려져 구속자부식을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탄원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비대위 위원장 최성업(3)군은 '학원자주를 위해 단식을 하던 과회장의 구속을 알고교과수강생들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은 총학생회나 과장단위를 형성하기 위해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은진 기자

지면안내

외대사망 토론회장으로3면
현재 우리가 당면한 외대 사상의 과제와
영성시대의 과를 TV6면
TV야말로 'X파일'?
대중세를 평가한다7면
'풍요'의 '빈곤'이 아닌 '노력'의 '풍요'로8면
전국을 강타하는 신종인구비율9면
이대다! 발생하는 사회정책적10면

1995회계년도 결산공고

학교회계 자금운용계산서 (1995. 3. 1 ~ 1996. 2. 29) (단위: 천원)

구분	잔액	구분	잔액
1. 상회계	56,871,248	1. 기금	58,127,898
1.1 일반회계	45,618,400	1.1 일반회계	28,318,015
1.2 특별회계	1,901,400	2. 전입금	3,966,720
1.3 기금회계	25,066,900	2.1 일반회계	44,862
2. 수회계	1,922,882	2.2 특별회계	1,953,943
2.1 일반회계	90,567	2.3 기금회계	13,760
2.2 특별회계	1,832,315	3. 기금회계	38,007
2.3 기금회계	1,300,537	3.1 일반회계	282,390
2.4 기금회계	69,877	3.2 특별회계	1,227,656
3. 전입금	7,622,367	3.3 기금회계	3,587,423
3.1 일반회계	1,640,000	3.4 기금회계	410,936
3.2 특별회계	3,325,310	3.5 기금회계	621,662
3.3 기금회계	1,657,057	3.6 기금회계	4,687,685
3.4 기금회계	963,951	3.7 기금회계	82,865
4. 기타수입	308,730	3.8 기금회계	208,510
4.1 일반회계	2,454,349	3.9 기금회계	338,072
4.2 특별회계	1,998,268	3.10 기금회계	836,743
4.3 기금회계	456,081	3.11 기금회계	7,864,297
5. 결구회계	901,500	3.12 기금회계	1,014,936
5.1 일반회계	900,000	3.13 기금회계	621,662
5.2 특별회계	1,500	3.14 기금회계	4,687,685
6. 결구회계	42,000	3.15 기금회계	82,865
6.1 일반회계	42,000	3.16 기금회계	208,510
6.2 특별회계	0	3.17 기금회계	338,072
6.3 기금회계	0	3.18 기금회계	836,743
6.4 기금회계	0	3.19 기금회계	7,864,297
6.5 기금회계	0	3.20 기금회계	1,014,936
6.6 기금회계	0	3.21 기금회계	621,662
6.7 기금회계	0	3.22 기금회계	4,687,685
6.8 기금회계	0	3.23 기금회계	82,865
6.9 기금회계	0	3.24 기금회계	208,510
6.10 기금회계	0	3.25 기금회계	338,072
6.11 기금회계	0	3.26 기금회계	836,743
6.12 기금회계	0	3.27 기금회계	7,864,297
6.13 기금회계	0	3.28 기금회계	1,014,936
6.14 기금회계	0	3.29 기금회계	621,662
6.15 기금회계	0	3.30 기금회계	4,687,685
6.16 기금회계	0	3.31 기금회계	82,865
6.17 기금회계	0	3.32 기금회계	208,510
6.18 기금회계	0	3.33 기금회계	338,072
6.19 기금회계	0	3.34 기금회계	836,743
6.20 기금회계	0	3.35 기금회계	7,864,297
6.21 기금회계	0	3.36 기금회계	1,014,936
6.22 기금회계	0	3.37 기금회계	621,662
6.23 기금회계	0	3.38 기금회계	4,687,685
6.24 기금회계	0	3.39 기금회계	82,865
6.25 기금회계	0	3.40 기금회계	208,510
6.26 기금회계	0	3.41 기금회계	338,072
6.27 기금회계	0	3.42 기금회계	836,743
6.28 기금회계	0	3.43 기금회계	7,864,297
6.29 기금회계	0	3.44 기금회계	1,014,936
6.30 기금회계	0	3.45 기금회계	621,662
6.31 기금회계	0	3.46 기금회계	4,687,685
6.32 기금회계	0	3.47 기금회계	82,865
6.33 기금회계	0	3.48 기금회계	208,510
6.34 기금회계	0	3.49 기금회계	338,072
6.35 기금회계	0	3.50 기금회계	836,743
6.36 기금회계	0	3.51 기금회계	7,864,297
6.37 기금회계	0	3.52 기금회계	1,014,936
6.38 기금회계	0	3.53 기금회계	621,662
6.39 기금회계	0	3.54 기금회계	4,687,685
6.40 기금회계	0	3.55 기금회계	82,865
6.41 기금회계	0	3.56 기금회계	208,510
6.42 기금회계	0	3.57 기금회계	338,072
6.43 기금회계	0	3.58 기금회계	836,743
6.44 기금회계	0	3.59 기금회계	7,864,297
6.45 기금회계	0	3.60 기금회계	1,014,936
6.46 기금회계	0	3.61 기금회계	621,662
6.47 기금회계	0	3.62 기금회계	4,687,685
6.48 기금회계	0	3.63 기금회계	82,865
6.49 기금회계	0	3.64 기금회계	208,510
6.50 기금회계	0	3.65 기금회계	338,072
6.51 기금회계	0	3.66 기금회계	836,743
6.52 기금회계	0	3.67 기금회계	7,864,297
6.53 기금회계	0	3.68 기금회계	1,014,936
6.54 기금회계	0	3.69 기금회계	621,662
6.55 기금회계	0	3.70 기금회계	4,687,685
6.56 기금회계	0	3.71 기금회계	82,865
6.57 기금회계	0	3.72 기금회계	208,510
6.58 기금회계	0	3.73 기금회계	338,072
6.59 기금회계	0	3.74 기금회계	836,743
6.60 기금회계	0	3.75 기금회계	7,864,297
6.61 기금회계	0	3.76 기금회계	1,014,936
6.62 기금회계	0	3.77 기금회계	621,662
6.63 기금회계	0	3.78 기금회계	4,687,685
6.64 기금회계	0	3.79 기금회계	82,865
6.65 기금회계	0	3.80 기금회계	208,510
6.66 기금회계	0	3.81 기금회계	338,072
6.67 기금회계	0	3.82 기금회계	836,743
6.68 기금회계	0	3.83 기금회계	7,864,297
6.69 기금회계	0	3.84 기금회계	1,014,936
6.70 기금회계	0	3.85 기금회계	621,662
6.71 기금회계	0	3.86 기금회계	4,687,685
6.72 기금회계	0	3.87 기금회계	82,865
6.73 기금회계	0	3.88 기금회계	208,510
6.74 기금회계	0	3.89 기금회계	338,072
6.75 기금회계	0	3.90 기금회계	836,743
6.76 기금회계	0	3.91 기금회계	7,864,297
6.77 기금회계	0	3.92 기금회계	1,014,936
6.78 기금회계	0	3.93 기금회계	621,662
6.79 기금회계	0	3.94 기금회계	4,687,685
6.80 기금회계	0	3.95 기금회계	82,865
6.81 기금회계	0	3.96 기금회계	208,510
6.82 기금회계	0	3.97 기금회계	338,072
6.83 기금회계	0	3.98 기금회계	836,743
6.84 기금회계	0	3.99 기금회계	7,864,297
6.85 기금회계	0	4.00 기금회계	1,014,936
6.86 기금회계	0	4.01 기금회계	621,662
6.87 기금회계	0	4.02 기금회계	4,687,685
6.88 기금회계	0	4.03 기금회계	82,865
6.89 기금회계	0	4.04 기금회계	208,510
6.90 기금회계	0	4.05 기금회계	338,072
6.91 기금회계	0	4.06 기금회계	836,743
6.92 기금회계	0	4.07 기금회계	7,864,297
6.93 기금회계	0	4.08 기금회계	1,014,936
6.94 기금회계	0	4.09 기금회계	621,662
6.95 기금회계	0	4.10 기금회계	4,687,685
6.96 기금회계	0	4.11 기금회계	82,865
6.97 기금회계	0	4.12 기금회계	208,510
6.98 기금회계	0	4.13 기금회계	338,072
6.99 기금회계	0	4.14 기금회계	836,743
6.100 기금회계	0	4.15 기금회계	7,864,297

대 차 대 조 표

(1996. 2. 29 현재)

(단위: 천원)

부채		자산		부채		자산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구분	잔액
1. 총 자산	612,316	23,722,325		1. 총 자산	23,722,325	1. 총 자산	23,722,325
1.1 일반회계	27,462	21,843,686		1.1 일반회계	21,843,686	1.1 일반회계	21,843,686
2. 특별회계	548,076	955,472		2. 특별회계	955,472	2. 특별회계	955,472
3. 기금회계	13,356	523,266		3. 기금회계	523,266	3. 기금회계	523,266
4. 기타회계	0	0		4. 기타회계	0	4. 기타회계	0
5. 미수금	23,423	0		5. 미수금	0	5. 미수금	0
6. 기타회계	0	389,497		6. 기타회계	389,497	6. 기타회계	389,497
				부채			
1. 무보증회계	51,036,651	8,057,087		1. 무보증회계	1,621,105	1. 무보증회계	1,621,105
1.1 차입금	27,371	87,860		1.1 차입금	0	1.1 차입금	0
2. 차입금	2,196,500	0		2. 차입금	0	2. 차입금	0
3. 차입금	580	274,000		3. 차입금	0	3. 차입금	0
4. 차입금	46,823,696	0		4. 차입금	0	4. 차입금	0
5. 차입금	0	2,330,129		5. 차입금	0	5. 차입금	0
6. 차입금	1,988,564	5,385,036		6. 차입금	0	6. 차입금	0
7. 차입금	5,460,292	0		7. 차입금	0	7. 차입금	0
8. 차입금	9,950,720	75,330,652		8. 차입금	0	8. 차입금	0
9. 차입금	2,069,147	6,361,695		9. 차입금	0	9. 차입금	0
10. 차입금	3,852,474	35,374,198		10. 차입금	0	10. 차입금	0
11. 차입금	0	5,460,292		11. 차입금	0	11. 차입금	0
12. 차입금	0	8,166,808		12. 차입금	0	12. 차입금	0
13. 차입금	27,260	2,904,209		13. 차입금	0	13. 차입금	0
14. 차입금	0	825,463		14. 차입금	0	14. 차입금	0
15. 차입금	5,183,568	0		15. 차입금	0	15. 차입금	0
16. 차입금	0	4,521,885		16. 차입금	0	16. 차입금	0
17. 차입금	0	6,429,610		17. 차입금	0	17. 차입금	0
18. 차입금	1,839	99,074		18. 차입금	0	18. 차입금	0
				부채			
1. 차입금	57,599,687	107,120,064		1. 차입금	57,599,687	1. 차입금	107,120,064

위와 같이 공표합니다.

정치적 상황따라 변화해온 남북경협

기본협정·상호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 겪어

(글 실는 순서)

1. 북한의 경제구조
2. 북한 대외경제정책의 변화
3. 남북경협의 현황
4. 통일을 준비하는 경협의 상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부가 북한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 흔히 북한에서의 물자 반입을 떠올리면 기암 뉴스에 나오는 북한을 정도를 연상하기 쉽다. 그러나 남북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꽤 오래전부터 교역을 하고 있다.

남북관계 진전에 따른 경제교역 증중

남북한간의 경제교역은 해방후부터 '3·8 밀무역'과 '군정무역'의 형태로 시작되어 물자교류와 함께 제한적인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 이러한 지역간 무역은 1948년 4월 공표된 '남북교역 및 경제 관련'과 함께 일체의 경제·정치·문화 교류가 중단되었으나 1978년 말 영국 상사를 통한 중개무역의 형식으로 석탄공사가 북한으로부터 무연탄 1만톤을 도입하면서 재개되었다. 이 교류는 1983년까지 계속되어 총 130만톤의 무연탄이 반입되었으며 1984년에는 북한의 수재 지원물자가 남한으로 인도된 바 있다.

이후 1988년 7·7대통령특별선언과 정부의 10·7 대북한 경제교류 허용방침 등의 후속조치로 남북한간 경제교류 정책은 적극적이고 방방으로 전환되어 북한 물자의 반입과 경제인의 남북 본국적인 남북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재개는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전환과 함께 일제 강점기의 화북과 북한의 재향한 인력의 활용 등 경제협력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욕구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등이 크게 작용했다.

반면, 1988년 경제교류가 재개된 이후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남북 교역의 실적은 부진했다. 그러나 1991년 들어서부터는 간접교역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직교역도 이뤄져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본격화되는 듯 했다. 특히 1991년 9월의 남북한 1인 동시가입과 12월의 기본협정 체결은 이와 같은 낙관적인 기대를 뒷받침했다. 1992년 초부터 남북관계는 급진



남북은 90년대부터 관계개선에 함께 꾸준히 경제교류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기본협정이 마련되지 않은 등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정치 군사적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사진은 북한에서 생산한 우리나라 옷(원곡)과 북한의 봉제공장(오른쪽)이다.

전되어 2월에는 기본협정의서와 발표되고 5월에는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구성되어 남북교류가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급진화된 남북경제교류는 북한의 핵문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게 되며 10월의 8차 고위급 회담 이후 북한이 남한의 팀스과리트 훈련 재개를 이유로 남북대화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침체기로 접어들었다. 그 후 93년 2월 세정부 출범 후 남북한 경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이인도 노인의 남북 회담을 계기로 남북경제교류가 재개된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이후 1998년 7·7대통령특별선언과 정부의 10·7 대북한 경제교류 허용방침 등의 후속조치로 남북한간 경제교류 정책은 적극적이고 방방으로 전환되어 북한 물자의 반입과 경제인의 남북 본국적인 남북교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경제교류의 재개는 정부의 대북한 정책의 전환과 함께 일제 강점기의 화북과 북한의 재향한 인력의 활용 등 경제협력에 대한 기업의 경제적 욕구 그리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등이 크게 작용했다.

간접교역 형태 품목은 다양화

현재까지 남북한간의 물자교역량은 1993년 11월말을 기준으로 볼 때 총 1,674건에 4억 9,478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북한물자의 반입은 89년 662건에 1,965만 5000달러, 90년 78건에 1,227만 8000달러, 91년 300건에 1억

572만 2000달러, 92년 510건에 1억 6,266만 3000달러, 93년 1,515건에 4억 7,000만 7000달러로서 91년 이후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이에 비해 북한으로 반출된 남한산 물자는 증가하기는 하나 남북한간 교역비율이 19:10에서 북한산 물자반입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남북한 교역의 품목별 현황을 보면 주요 반입 품목으로 금과, 은과 및 열연고일, 아연과, 무연탄, 철강재 등 금속광산물과 간자, 명태, 오징어 등 농수산물에 주종을 이루고 있다. 한편 반출품목으로는 고밀도 폴리에틸렌, 테트

라 캔, 양말직조기 등 최종소비재 관련 경공업 제품과 컬러 TV, 냉장고, 가전 제품 등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은 남북한간의 교역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교역의 형태는 현재까지 중국·홍콩·일본·싱가포르 등을 통한 간접교역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거래방식은 초기에는 제 3국을 통한 현금 결제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물물교환 방식의 구상 무역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출입 품목의 내용을 보면 초기의 단순상품에서 반제품으로 점차 고도화·다양화되고 있으며 간접·통관·통관비 부담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북, 의화·정보 부족으로 난항

한편, 남한 내 참여기업은 종합상사 위주에서 점차 중소기업까지 확산

되고 있으며 반출품은 대부분 중국·홍콩 기업의 상표가 부착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의 남북한 교역은 반입 위주의 소규모 간접교역 중심으로 이뤄져 오고 있으며 초기에는 기업정보 차원의 전신 물품(농산물) 등이 반입되었으나 그 후 금산물·농수산물·경공업 제품으로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 3국의 중개를 통한 남북한간 임가공 형태의 교역이 활성화되어 따라 이렇듯 사 등 임가공을 위한 원자재의 반출과 의복, 가방 등 임가공 상품의 반입이 늘어나고 있다.

1988년 정부의 대북경제교류 허용방침 이후 남북교류의 확대의 기본토대가 마련되어 남북교류협력에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그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간의 물자교역의 경우 현재까지의 총액 물량은 총 4억 9,478만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남북한간 교역 비율은 19:10에서 북한산 물자의 반입이 압도적으로 많아 남북한간 교역은 남한의 일방적인 북한물자의 집합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교역의 형태도 남북한간 직교역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주로 제 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남북교역이 저조한 이유로는 주로 북한상품에 대한 정보부족, 반입된 북한상품에 대한 보상장기 미비, 북한항해선박 확보의 어려움과 남지 낙진, 북한측의 일방적인 계약파기 등 간접교역에 따르는 문제점과 함께 남북한간에 무역협정, 부

자보호협정 등 경제교류에 필수적인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기업체의 불안이 높으며 분쟁발생 시 신속공정한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교역상의 문제점으로는 북한의 외화부족과 교역대상품목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자원과 남한자본의 결합이 해결책

따라서 북한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출임금보다 주요 수출품인 광산물, 수산물 등 1차상품인 점을 감안하면 남북한간의 교역규모보다 교역규모는 당분간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경제협력의 경우 남북경제협력기 정부의 통일정책의 최우선과제로 강조되는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전무한 상태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가져왔다. 남북한간 통상교역의 확대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북한의 외화부족과 교역대상품의 부족이며 이같은 교역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풍부한 천연 자원과 남한의 자본, 기술을 합작 생산을 통한 수출확대를 통한 북한의 외화부족 해소에 도움이 되고 남한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협력 사업자 승인을 받아 합작투자 등이 성사된 사업은 아직 한건도 없으며 대부분은 접촉과 방방상인 신상을 낸 기업체가 1백여 개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기본협정 미비 남한정부 허가 어려움

이처럼 남북한경협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남북한간의 부자보호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경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함께 정부 차원의 협력정책을 들 수 있다. 경제협력에 따른 두 군사분계선의 연계에 따른 추진되는 관계로 불안정한 정치·군사 상황의 변화가 경제협력의 추진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군사 부문과의 연계에 따른 경협의 추진에 있어서는 'Stop and Go' 정책은 경제교류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 원 석

[단국대 교수]

수재 현황을 다녀온 버나드 크리셔씨를 만나

“구조신호 외면하는 것은 잔인한 처사입니다”

지난 5월 31일 (금) 한국문화재단에서는 그간 3차례의 방북을 통해 수재자원을 해온 미국인 버나드 크리셔(Bernard Kricher) 씨의 강연회가 열렸다. 크리셔씨는 순수한 민간차원에서 북한을 도와왔으며 이번 방한 역시 한국인들에게 북한수재지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였다. 강연회는 방북 비디오 시청과 참가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이뤄졌다. 강연회를 마친 크리셔씨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아쉽다”고 말하고 순수한 도움보다는 정치적 질문이 많이 나온점에 대해서도 의아해했다.

주인단을 이끌고 있지는 않았지만

—위에서 봤을 때, 평년에는 900 정도를 받고 있는데 큰 폭 후에는 절반으로 줄었다. 450이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최소의 식량이다. 추위로 굶주리는 젊은이를 많은 수재인들에게 우선순위로 지급되고 있다. 지금 현재 북한에 가장 심각한 것은 쌀과 분유이다. 어머니들이 영양실조로 걸려 아이들에게 모유를 공급할 수가 없다.

—적십자사도 국제기금에서 계속 책을 보내는데

—많은 국제기관들이 당초 계획의 20%정도에 지원하고 있지 않고 앞으로는 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공개에 상당히 걸 것으로 보인다. 추후하기 전까지 6, 7, 8월이 고비일 것이다. 굶주린다고 큰 목소리는 아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약해지고 전염병이라도 돌게 되면 큰일이다. 지금 아주 심각하지 않다고 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한 정부는 지원물자를 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데, 크리셔씨의 공급경로는

—최근 11월 말 이전에 전달했는데 한 번도 문제가 없었다. 정부에서 관리들이 나갔지만 전혀 감지하지 않았고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왔다.

—북한 경제의 국제적 상황은

—국제적 연루나 조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몇 가지 단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좋지 않은 상황이다. 소련붕괴 후 교역이 중단된 상태여서 더욱 그렇다. 북한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전대할 수 있다’는 정신력과 의지가 그들의 경제를 유지하는 힘이다.

—최근 일부의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신의주 부근 기차 수재가 실패 한물을 ‘시범마을’로 삼아 외국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데

—특별히 다른 것을 보지 않아도 어디나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일부러 꾸미거나 하는 노는 받을 수 없었다. 훌륭한 기차라면 전차와 ‘정식화’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통곡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본 것에 의한 것인데

—후술에 대해 국민이 정부를 믿고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평일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직접하고 고위 관료들도 도움을 주기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만주에서 한 일가를 만나 141강도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때 느낀 것이 매우 달갑게 느껴지고 한니로 느껴지는 것이었다. 신의주를 가는 자차에서도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도 서로 담배를 나누는 등 따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부를 떠나 사람과 사람이기 매우 공동체적이었다.

—기차생활을 할 때 남한기차 동굴을 기본 적이 있다. 그곳의 사람들은 블레즈프에 대해 매우 남소속이었는데, 지난해 간접수 주석의 시체를 인정한 곳에 갔을 때 많은 여자들이 울고 있었고 진정으로 자기의 지도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사회가 쉽게 붕괴되지는 않을 것 같다.

—남한 내에는 동족을 도와주는 의견도 있지만 식량이 군량미등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고 그 배에서 구조신호가 나왔다면 탑승자가 누구인 건에 달하는 것이 옳고 그르다. 평양에서 비행기에서 한 대위를 만났을 때 그에게 군량미에 대한 질문을 했다. 그는 조금 불쾌해 하지만 ‘내 배에다 부모의 형제가 있습니까’라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먹으면서 내 가족들을 굶릴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 그래도 남한사람들이 먼저 못타면 내 배 직접 민간인 함고에 보관하고 나눠주는 것을 환영하도록 하겠다.

사하부

LG Fashion

티피코시 광고아이디어 공모전

티피코시 감사 페스티벌

5월 17일 ~ 6월 5일
2인용 이상 구매시 3000원
POP BEST CD, 이대리 수첩, 연필, 노트, 티피코시 등 상품을 드립니다.
※ 3가지 중 택일 수 있습니다.

티피코시 전국매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1
티피코시 강남점
02-3456-7890

TIPI-COSI

‘국가 안보’ > 경제발전 > 국민 인권

소득격차 심화... 아동 노동·매춘 문제 심각

인권 보고서

- ①국가보안법의 체계적 실태
- ②대만의 백색공포
- ③태국의 국가안보법
- ④한국의 학벌, 국가보안법

면적 51만 4천 평방km, 인구 5,860만 명의 태국, 태국의 인권상황은 전체 인구의 1,600만 여 명이 호충과 같은 고향을 잃고 있을 정도로 공기로 많이 심각하고 열대의 열악한 상황이 40년 사이에 1/3으로 줄어드는 현상에서 그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성장과 그 뒤안길의 고통을-

태국의 절대빈곤율은 1992년 군부의 쿠데타로 입헌군주제로 전환했다. 이때부터 태국의 정치의 곧 소수의 권위, 민간관료 엘리트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는 권위주의적 관료정치 체제로 변질했다.

1951년 제1차 헌법의 쿠데타는 경제성장을 시작하는 전환점이었다.

‘반전 지향적 경제개발정책’은 ‘개발의 하에 헌정

소수 독재정권,

‘안보 = 발전’ 하에

경제발전만 추진

기구를 폐지하고 충성을 동결하고 정당활동 금지, 노조 해체, 파업 금지, 용공분자들의 검거 등 강력한 독재정권하에서 수출지향 산업화를 추진했다.

제1차 정부는 ‘안보=발전’의 이데올로기를, 즉 경제발전이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이를 위한 소수독재를 정당화시키는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며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했다. 태국은 지난 30년간 거대한 경제성장을 해왔으며, 특히 80년대 중반 국가개발과 경제 민주주의(보호주의) 강화 이후 10년 평균 경제성장률 세계최고 기록(8-12%)을 세울 정도였다.

태국의 경제성장은 산업부문과 서비스 부문의 성장 중심에서 농업 부문은 상당히 퇴보되었다. 농업 부문의 생산은 GDP의 14.4%이지만 농촌 사회의 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60%나 된다. 농촌 사회의 분배는 많은 산업 예비군을 양성하여 낮은 임금 노동자 정책을 유지시키는 전제조건이 된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매우 심각하다.

예를 들어 전체 인구 중 80여만 명이 물려있는 국제도시 방콕과 ‘월야나’ 할아비지와 소나 손자들의 마을’이라고 불리는 동부지역의 마을의 차이는 매우 크다.

거대한 경제성장이 가져온 혜택이 분배된 상태를 보자. 태국정부 통계에 따르면 최저소득층의 소득은 1975년 전체 소득의 6%에서 1988년 4.5%로 떨어졌다. 반면, 최고소득층의 소득은 49%에



태국은 거대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제발전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국민 인권유린과 탄압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직도 태국에는 가난한 다수가 기본적인 인권마저 박탈당한 채 소수 매춘과 아동 노동취급에 시달리며 힘들게 살고 있다.

이때 따라 여성 및 어린이 인권침해, 미성년자 매춘, 아동노동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1990년 13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 중 943,371명, 1,000명이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으며 14세 이하 아동 중 10만명이 불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 감금된 상태로 훈련받고 부임을 당하는 아이들이 매일 조그만 공장에서 봉제, 가발, 신발, 조화, 장식품 제조, 그리고 서비스 직종에서 미숙한 노동 및 위험한 노동에 종사한다.

그 원인은 농촌의 분배와 가난이다. 아이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가족의 도시이동으로 교육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일하러 나간다. 보통 이들의 한달 월급은 8,000원(한화 약 22,4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 직업훈련과 강제노동을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

관습화되고 월급은 64,000-90,000 정도이다. 그리고 인쇄나 대량제조에 위임해 처해있다.

사실상에서 미성년 여성의 매춘은 매우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 쪽으로 관광의 대명사로 태국을 떠돌아다니는 현실이 그 상황을 짐작하게 해주며 태국에 매춘 뿐 아니라 일본으로 팔려간 태국여성들의 매춘문제도 이미 일본사회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권력위한 경제발전

국민 인권

피해화

이 모든것이 가난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대한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조공이라도 돈을 받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하는 상황은 경제성장이 태국의 많은 국민들의 인권신장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개발을 추진하고 국민을 억압하는 국가들이 외치는 ‘인권보장’은 경제성장이 바탕이 되어, 경제성장이 우선이다. 이것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길이다’ 등의 슬로건이 허구임을 증명한다.

소수의 지배와 인권을 위한 국가안보 이데올로기는 국민의 안보와 환경안보에 위협을 가해온 것이다.

이점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개도국과 현재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통의 문제이다.

장 소영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국제대부장〉

생활 속에서

김영삼대통령은 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다른들 몰라도 쌀시장 개방은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곧 김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물러나야 할 것 같다.

정부는 쌀수입협상 타결후에 농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명분으로 ‘수입용 쌀은 가공용으로만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에 따라 지난해부터 최소시장점유율(MMA) 물량인 인도산 35만 석을 가공용으로 수입했으나 올해부터 최소시장점유율(MMA) 물량인 4만석은 쌀의 직정제고를 위해 직접 밥을 지어먹을 수 있는 식용을 들여올 것이다’라고 했다. 이 방침은 자국적 식량자급을 포기하고 국민

병주고 수입약 주기

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정부의 무사고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쌀재고량 부족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변명과는 달리, 쌀값의 인위적 억제와 정



의 생명과 직결된 식량을 외국에 의존하겠다는 정부의 무사고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쌀재고량 부족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변명과는 달리, 쌀값의 인위적 억제와 정

부를 추곡수매 감소등, 잘못된 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정책이 농민들로 하여금 농

박병수 기자

학술 단신

제 2회 전국대학생 여성 토론

‘여성의 손으로 세상만들기’ 포럼 열려

대한YMCA연합회 산하 대학YMCA전국협의회에서는 오는 6월16일(수)·29일(토) 3444명간 강리교연수원 삼릉유스호스텔과 연세대 동문관에서 제2회 전국대학생여성토론회를 연다.

‘여성의 손으로 세상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모임은 오늘날 여성, 남성, 대학생 그리고 모든 인간을 둘러싼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만들어 보자 여러가지 강연, 세상읽기1, 2, 세상만들기, Home Group모임, 문화모임, 대학생 여성대회등 다양한 행사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이 포럼은 젊은 대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우리들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과 주체적인 삶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민교협 12번째 월례발표회

‘신한국’ 3대 정책구상 비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는 ‘신한국’ 3대 정책구상의 내용과 한계는 주제로 민교협사무실에서 오는 4일(화) 오후 7시에 발표회를 한다.

이 발표회는 민교협에서 전문학문의 괴리를 없애기 위해 계획한 월례발표회 중의 하나이다. 이번에는 경제·노동·복지 분야를 연구하는 여러 교수들과 신재벌·신노조·신복지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알아보고 비판할 예정이다.

신재벌에 관해서는 박노현(방송대 법학과) 교수가, 신노조는 윤진호(인하대 경제학) 교수와 양영규(조지아텍대학원) 교수(전노련, 원광)가 발표를 한다. 마지막으로 신복지에 대해서는 김영범(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표한다.

아시아, 4자회담 과제와 추진방향 포럼

“4자회담을 준비하자”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원장: 이창희 본고 법대 교수)에서 ‘4자회담의 과제와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6월 5일(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학술시민포럼을 연다.

최근 한국·중국·미국이 4자회담을 전제조건없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있어 4자회담의 성사가가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포럼을 열게 되었다.

이번 학술시민포럼에서는 4자회담의 성공을 위해 남북에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이고 타당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 포럼은 두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1주제는 ‘4자회담의 외교, 군사적 과제와 추진방향’이고 2주제는 ‘4자회담의 법적제도적 과제와 추진방향’이다.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개최

사이비 기자 및 지방언론에 관한 토론회

‘사이비기자 근절 및 지방언론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바른언론을 위한 시민연합 주최로 6월 4일(화) 오후 2시에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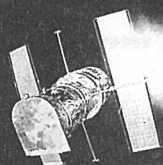
현재 500여개의 지방언론종류 중 경영구조 약40% 정도에 불과하고 있는 지방언론사가 50%에 달하는 데다가 정부의 과도한 지방언론 규제, 만연한 부조리, 지방언론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부족등이 겹쳐 지방언론 기자들이 사이비기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지방언론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방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사이비기자의 문제점 지적 및 근절 방안, 지방언론의 의의 등을 토론했다.

학계, 시민단체, 정부, 사이비기자등 인한 피해자, 지역신문협회, 법조계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사이비기자 퇴치를 위한 법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언론발전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확인 그리고 국민적 여론화를 꾀하고자 한다.

노벨경제학상 유케넨 본고 강연

시장 경제와 국가에 대해

지난 31일(금) 오전 10시 30분 상경대학과 경제경영연구소 주관으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유케넨(James M. Buchanan) 교수와 미국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인 유문복박사를 초청해서 시장경제의 원칙과 헌법적 경제원리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유문복 교수는 유케넨 교수와 공동저술로 ‘현대경제학으로의 전환’이라는 책과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강의에서 유케넨 교수는 시장경제에서 국가의 규제와 보호주의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열려로 설명하였다.



PCS와 미래통신사업-효성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1979년 국내 최초로 상용 컴퓨터를 생산하고
1983년 전자연구소 설립한 효성그룹.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 분야의 연구개발에 앞장서 오며
효성컴퓨터, 효성데이터, 효성인포메이션, 효성정보통신,
효성텔레콤 등 5개사를 중심으로 정보산업에 주력해 왔습니다.
이제, 효성은 정보산업분야의 축적된 기술노하우를
개인휴대통신(PCS)사업으로 집약시켜, 40여년간 다져온
건설한 경영을 바탕으로 21C 통신복지사회를 건설해 갈 것입니다.

효성그룹

정부의 사회 진보세력 숨통조이기

본교 신방과 과학장 구축·전학원 의장 엄형식군 수배

얼마나 더 많은 구속이 있을 것인가?

오늘 하루부터 지고 일어나면 조직 사건이 터지고 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명을 쓰고 잡혀가고 있다. 언론은 한술 더떠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조직사건의 현황과 언론에 비친 사회진보세력의 모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정부의 신안검정조 조장은 이은 학생 운동·민중운동 단임이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학생·민중 운동에 대한 탄압도구로 이용되어 오던 조직사건이 문민정부에도 파골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발생한 조직사건만 봐도 사회주의 노동자동맹(시노맹) 재건기도 11명 구속사건, 서울대 노노맹이 조직사건, 사회주의 학생연대 관련자 14명 재판, 한국노총청년연대 7명 구속 등 고리를



계속되는 조직사건을 통한 학생·시민들 사회진보세력에 대한 탄압이 가속화 되고 있다. 탄압의 근본적인 목적은 비판세력 제거를 통한 정권 유지에 있다.

지난 달 16일에는 전국학생정치연합(전학련) 전 의장 손형우씨(25, 동국대) 등 9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결성혐의로 구속되고 한 의장인 엄형식(본교 사방 불어 4군 등 9명)이 긴급 수배됐다.

이들은 사회주의 노동당 건설을 목적으로 전학련을 결성한 뒤 20여명 단임 10여 차례에 걸쳐 각종 노총학생대투쟁과 불법

집회에 조직원들을 참여시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8일에는 나사리합동회 회장 서형국, 사무처장 사이연씨 등 3명이 사진 구속영장집행이 강제되었다. 이들은 나사리합동회의 소속자인 '장산팔매'에 북한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실렸고 범민련과 관련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고무장갑,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지난달 29일에는 이적단체를 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식과 교육을 시켰다는 혐의로 해방노동자 통일전선위원회의 김영복씨 등 4명과 사노맹 대구·경북지부의 재건을 위해 조직원들을 양성해온 혐의로 5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91년 12월 '학생투쟁을 강화시켜 남한에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해방노동자 통일전선이란 조직을 결성한 뒤 지난 93년말까지 노동자 정치학교를 개설, 대구지역 노동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이적표현물 교육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상공연대 총학생회장 구속, 본교 신방과 과학장 조태현군 불법시위 고소혐의로 구속, 서울지역전대총학생회협의회(사전협) 의장 현인숙(송의여전 총학생회장) 구속등 하루가 다르게 조직사건을 통한 탄압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총산이후 국민의 뜻인 여소야대를 재대로 바꾸고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비판하는 학생과 시민을 말살하려는 음모'라며 '어떻게든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는 데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 언론 이용한 체제 지키기

언론, 학생운동 불법 과격 단체로 규정

요즘 정부와 언론은 학생·민중운동에 대한 공격을 하고자 할 틈이 없다.

정부는 청와대 국가기강확립회의, 대학 총·학생 긴급이사회, 학생운동대책 회의, 경찰청의 좌익세력 보안사업세력 지시, 계속되는 치안관계장관회의 및 설치 결정, 시위진압시 감기위주로 전환 등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의 포화를 피하고 있다.

이에 편승한 제도언론도 학생·민중운동세력을 일방적으로 국가전복세력 운운하며 매도하고 있다.

얼마전 조 신문에 '좌경세력 다시 기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비중있게 실렸다. 한동안 뜸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우리 사회내의 좌경세력 활동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내부의 혼란조성을 노리는 북한의 대남활동이 수그러들기 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추종하는 학원·노동·문화계 등 각 계층에 흩어져 있는 북한 추종세력이 50만에서 700만에 이른다는 이들을 적화할

때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또 한 신문은 사실을 통해 전라북도 도지사가 한총련 출판사에서 축사를 한 것을 두고 '불법적인' 학생운동을 고무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한총련이 친북

적이며 폭력적이고 지극히 반정부적인 불법단체라는 것이다.

아울러 언론은 '학생·민중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현 정부의 운동세력에 대한 대응자가 무원칙적이고 유향적인데서 비롯됐다'며 이제 '학생들의 시위도 못마는 무한한 정부'라는 소리를 들지 않게 정부가 학생운동에 강경 대응해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언론은 자신들의 기록 권유지와 체제안정이라는 명목하에 사회진보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보장돼있다. 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집회와 선전을 통해 정인폭력 집회에 속한 노수숙군의 사진이 들어간 것과 재단이사장의 군이 총장임을 들어갔다는 이유로 배조증정지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배조증정을 담해 기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 조산대, 수일대, 세종대, 대전대학교가 편집자료를 탄압등의 이유로 공판처에 당한 적이 있다. 최근 정장발행되었거나 곧 될 예정이다.

한편 주경에세는 몇년째 신문을 내지 못하다가 한동안 다시 신문을 만들기로 협의를 보였으나 '수습기자'들이 3개 단계를 한 단계만 물러갔다'라는 이유로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정장을 통보했다. 주경에대 신문은 아직 공판처에도 등록되지 못했다. 이렇듯 학내성원들의 자유로운 언론권이 되어야 할 학보가 실패한 현실을 알고 있다.

사회 단신

경대·숙대 신보 발행중지

편집 자율권 사수 투쟁

대학신문이 또 한차례의 탄압을 겪고 있다. 지난 달 중순경 경기대학교(경대)와 숙명여자대학교(숙대)가 각각 학교측에 의해 발행중지됐다. 경대학보는 학교측의 총장비서관 연가사를 실으려다 주간교수의 '배지'가 실렸다는 이유로 '배지'라는 글에 대해 학생기자들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아 발행이 중지되었다. 경대학보발행중지는 경대 내에서의 뜨거운 감자인 '총장비서관과 민주총장'에 대한 논란까지 번져 학원지주회투쟁에 불을 지피고 있다. 숙대신보는 창립 99주년을 맞아 기획한 사진특집에 일방적인 경찰의 살인폭력 집회에 속한 노수숙군의 사진이 들어간 것과 재단이사장의 군이 총장임을 들어갔다는 이유로 배조증정지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논리로 배조증정을 담해 기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대 조산대, 수일대, 세종대, 대전대학교가 편집자료를 탄압등의 이유로 공판처에 당한 적이 있다. 최근 정장발행되었거나 곧 될 예정이다.

한편 주경에세는 몇년째 신문을 내지 못하다가 한동안 다시 신문을 만들기로 협의를 보였으나 '수습기자'들이 3개 단계를 한 단계만 물러갔다'라는 이유로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정장을 통보했다. 주경에대 신문은 아직 공판처에도 등록되지 못했다. 이렇듯 학내성원들의 자유로운 언론권이 되어야 할 학보가 실패한 현실을 알고 있다.

계명대, 교협 폐쇄 결정

교협·학생측 교협사수 결의

지난달 27일 (월) 계명대 이사회가 교수모임인 교수협의회(교협)를 폐지한다고 결정했다.

계명대는 88년 민주화의 결과로 교협이 결성된 지선으로 총장을 선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초 이사회가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하면서 차기 총장으로 현재의 신일회총장을 재선임했다. 신일회총장은 61년부터 78년까지 총장을 지낸 신대식씨의 아들이다. 78년부터 82년까지 총장을 지냈다. 또한 88년 교협이 뽑아 온 최초의 직선총장이며 92년 총장에 재선됐다. 그러나 신총장은 재선시기에 비민주적인 대학운영을 해 교수들의 반발을 샀다. 이런 폐지 결정을 내리고 지난 31일(금)에는 교협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교협측과 학생측은 "만약 이사회가 교협을 폐쇄시켜 학원 단태에도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내기와 전쟁준비

요즘 월간이 부쩍 올랐다. 이를 보고 '우리도 쌀 부족함에 북한에 보내주려고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북한 군인들이 군량이 먹고 힘내서 남침하면 어떡하나' 또 '조만간 전쟁날테니 기념일이 무슨 기념일이나'며 결혼기념일을 앞둔 아내의 축하를 위한 선물로 달린다.

쌀 보충에도 없는데 그런 말이 나도는 것 자체가 우습기도 하고 북한은 지금 수확배수에 모든 인력이 동원된다. 먹을 것도 없는 건박한 상황인데 무슨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지 이해에 맞지도 않은 말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다니 안타깝기만하다.

지난 달 26일에 유에스아시아뉴스 국제담당 주필인 문명재씨가 북한에 다녀왔다. 그는 '북한주민들이 예전에 북한을 방문했을 때보다 수척해졌지만 모두들 식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내기 준비에 한창이었다'라며 전쟁준비를 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씨가 최근 남침성에 대해 말하자 한 농부가 '모내기 해버리면 전쟁이 다 끝나니까'라고 처음듣는다는 듯 반문하였다고 한다.

최근 한국정부는 북한에 4차회담을 제안하였다. 비아호로 세계의 호르몬 화해와 평화

공간의 분위기가 한반도에도 불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남침가능성' 운운하며 국민들의 반공정신을 드로하며 자신들의 집권에 유리하게끔 이용하고 있다.

과연 북한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북한의 전쟁도발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미루어보아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우선 통설로써 전쟁이 장기전으로 갔을 경우 경제력이 두배가 넘어야 이길 수 있다. 북한은 우리보다 월등히 경제수준이 낮다. 그렇다면 북한이 남침을 무력으로 이기려면 단기전밖에 승산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리영희, 교수의 '전쟁능력 비교연구'라는 논문을 보면 단기전으로 속전속결하여 이기려면 최소한 남한보다 두배의 군사력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재하고도 남한의 군사력은 절반만 보더라도 북한을 넘어설 수 있으며 그 사실은 방위비가 북한의 3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잘 말해주고 있다.

"배고파서 죽으나 전쟁하다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오기로 남침하지 않을까?"라는 후배의 말을 들으니 모내기에 바쁜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우리의 편견과 서로간의 불신이 세상 안타개를 켜고 있다.

허을숙기자

6·10 항쟁 10주년 기념행사 청년추진위원회를 찾아서

완전한 역사청산과 민주화 위한 6월 정신 계승



6·10 항쟁은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민주주의를 변화시키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아직 미진한 역사 청산과 민주화의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다시 6·10 항쟁의 정신이 필요할 시점이다.

예전에는, 그리고 35년째 내린 1·2월까지 6·10항쟁 10주년 기념행사 내용과 집행구조를 확정한 행사준비위원회와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청년추진위원회는 6·10항쟁 9주년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일(월) 오후 6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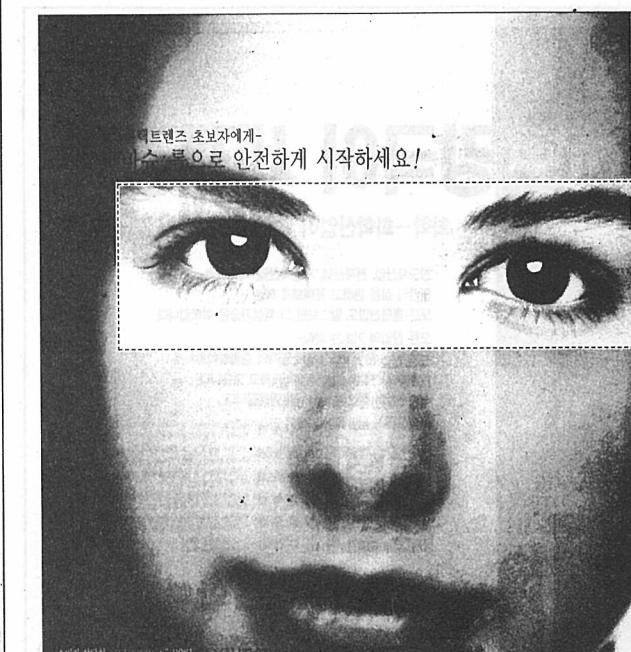
30분 기독교연합회관 신관 3층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청년준비위원회 결성식과 범국민 진전모임 주위의 6월항쟁 9주년 기념의 밤이 있을 예정이다. 그리고 6·10항쟁 10주년 기념식과 추진을 위한 6102의 청년선언과 판고계제를 추진하고 있다.

청년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는 한대협동조합의 사무국 최흥욱씨는 '전국민 항쟁이었던 6·10항쟁은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정본을 변화시키기 시작한 계기였어'라며 '아직도 미진한 역사청산과 민주주의의 과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 6·10항쟁 정신을 다시 계승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라고 6월항쟁 10주년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다.

내년이면 6월항쟁 10주년을 맞이한다. 6월항쟁 정신계승과 사회개혁에 창당한 앞장서서 6월항쟁을 역사에 바르게 자리매김하려는 모습에 진정한 역사바로세우기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재를 마치고 나 오면서 최흥욱씨가 한 말이 생각났다.

"6월항쟁에 아마 여러분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었죠. 6월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의 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김주영 기자



건강한 눈을 생각하신다면-
콘택트 렌즈에서 관리용액까지 바슈·롬 하나로!



바슈·롬 콘택트 렌즈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택!
바슈·롬 일회용 콘택트 렌즈
일회용 렌즈도 역시 전문회사 바슈·롬!
2주일까지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바슈·롬 다목적 용액
세척, 헹굼, 소독, 보존을 하나로!
콘택트 렌즈 관리가 너무 간편하세요!
첫 순안부터 편안합니다.

BAUSCH & LOMB

이번주 2학기 수강신청 기간

계절학기 신청 12일부터 14일까지

96학년도 2학기 정규수강신청이 오는 3일(월)부터 7일(금)까지 소속학과 학과장실 및 부원장공지도 교수실에서 실시된다.

계절학기 수강희망 과목 조사도

정규수강신청 날짜에 맞춰 수강희망과목을 함께 신청한다.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양평과 교수실에서 12일(수)부터 14일(금) 3일간 해야하며 국민윤리·매스컴

의 이해·환경과 생태·음악사·철학개론 등 20여 과목이 개설된다. 이와 관련 교무과 유준산씨는 "수강희망인원 30여명 이상인 교

과목에 한하여 개설될 것이다. 희망자는 빠짐없이 계절학기 수강희망과목 조사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생협 조합원 정기 총회, 오는 5일

1학기 결산 및 힘찬 2학기 준비

2대 생협활동조합 학생위원회에는 1학기 결산 및 힘찬 2학기 준비를 위한 정기 학생조합원 총회를 오는 5일(수) 공대 207호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 △1학기 사업보고 △생협활동조합 정기 대의원

총회 보고 △8회 하계여학연수에 관한 사업이 보고안건으로 상정된다. 또한 △96년 학생위원회 대의원 승인 △96년 학생위원회 2학기 사업계획 승인 △학생위원회 회칙 승인 △내내복지 재편과 후생복지

관에 관한 결의안건이 있다. 이와 관련 생협 정책국장 채근수(서학·불어 4)군은 "1학기 동안 생협에선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라며 또한 채근수는 "앞으로도 많은 학생들이 생협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합원에 많이 가입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총회가 그동안 사업들에 대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평가와 함께 이후 조합원들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학단신

용인

KBS 열린 음악회 7일 열려

개교 42주년을 기념하는 KBS 열린 음악회가 오는 7일(금) 용인캠퍼스 명수당 잔디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국내 구성원과 지역주민들간의 한마당 잔치가 될 이번 행사는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녹화광장되며 TV방송은 23일(일) 오후 10시 30분부터 방영된다.

또한 이날 출연가수는 조영남, 인순이, 김경민, 최재훈, 유열, 박용경, 권진원, 아델이 주는 나무들이 나올 예정이다. 또한 금주중 학과를 통하여 배부되는 입장권 소지자에 한해 입장이 허용된다. 한편, 답답한 한여름 노선버스는 오후 10시 30분까지 운행된다. 이와 관련 서은희 총무과장은 "행사시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A.L.A 듣기평가 대회 열려

지난 29일(수) A.L.A(Akn Listening Association)가 본교 학생의 영어 실력평가 및 동아리 홍보를 위해 리스닝 콘테스트(Listening Contest)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월드 리뷰의 박상진(편집국장) 씨가 단어·속어·문법·대화·번역 등 5개 부분으로 나누어 문제를 출제했고 약 50여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발휘하는 자리였다.

1등은 박정현(서학·영어 3)이 차지했고 부상은 월드리뷰 1년간 정기구독권이 수여됐다. 2등은 송근우(서학·영어 4), 3등은 함성후(서학·사범)이다. 이영훈(동학·아랍어)군이 각각 차지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회장 김은경(동학·인도어 3)은 "다소 어려웠던 이번 콘테스트는 본교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알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순찰 사랑회, 모교 방문의 날

장예인과 함께 동아리 순찰사랑회에서 지난 2일(월) 모교방문의 날을 열었다. 85학년부터 참가한 이번 행사는 체육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명수당에서 화합을 가졌다.

행사를 준비한 장진석(자연·미생물 3)군은 "어렵고 서막한 선배사이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라고 밝혔다.

학생2분과 체육대회 6일

6개 동아리(동학·에스페란토·영·타인·백)로 구성된 학생 2분과 체육대회가 오는 6일(목) 대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농구·축구·발아구 등을 비롯하여 Fox Hunting이라는 무선통신 게임이 있을 예정이다.

서울

미스터 외대 선발대회 및 에어로빅 발표대회

제6회 미스터 외대선발대회 및 에어로빅 발표회가 헬스 에어로빅의 주최로 오는 7일(금) 노천극장에서 개최된다. 외대의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 향상을 위해 열린 이번 대회는 외대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행사일정은 1부 디스코 경연대회, 즉석미팅, 2부 본 대회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를 준비한 최영탁(상경·무역 3)군은 "동아리 10주년 행사로서 노천극장에서 대대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많은 학생이 참가했으면 한다"라고 행사에 앞서 바람을 밝혔다.

사범대 교육여행 다녀와

사범대 학생회는 지난 15일(토)과 2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두말초교로 교육여행을 갔다.

서울지역 사범대 협회(서사협)에서 주최한 이번 교육여행은 정부의 행정편의와 폐교된 학교에 학생들이 찾아가서 교편을 잡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 사범대학 학생회장 이원복(영교 3)군은 "정부에 반발하면서 학교 살리기운동에 참여하는 주민들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학생들이 학교육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여행이었다"라고 밝혔다.

<주간 일정표>

6/3(월)	6/4(화)	6/5(수)	6/6(목)	6/7(금)
	민주남부 성서야회를 통한 총투표			KBS연예특집 (오후 7시, 유원)
	9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보도사진부 실명전			
	제5차 학대운동회 (유원)	학내경의대회 (유원)	생협 조합원 체육대회 (유원)	

□ 91년 6.3사건 당시 서양대대 부학생회장 박광열군을 만나

"외대 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던 투쟁입니다"



"외대생들은 끝까지 자신심을 지켰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외대운동사에 큰 획을 그었던 투쟁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다" 지난 91년 6월 3일을 떠올리며 한창기 말문을 연 박광열씨(서학·영어, 88졸). 현재 경제정보실장사임한 함 통일열의 간사이다. 박씨는

6·3관전지로 지령수배되어 두달간 떠돌이 생활을 하기도 했다. "김재정장을 죽음으로 내몬 진짜주변 정권식씨가 외대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너무 광기라고 수치스러웠습다. 처음엔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앞섰지만 이 사건으로 대체하려고 노력했죠"라며 말하는 박씨는 그 당시 심정을 여지껏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명지대 김정대열사, 성균관대 김재정열사도 집회도중 관공역에 의해 죽음을 당했던 총격이 사라지지않은 시국에 정권식씨는 총리임명을 앞두고 당시 6월 3일 마지막 강의를 하기 위해 본교 교육대학원에 많은 기자들을 수혈하고 들어갔다.

"한 기자가 총학생회로 연락해서 소식을 알렸죠. 학생회 간

부안에서 수습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도서관에서 1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라며 이날 사건은 명백히 우발적이었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런데 언론은 외대생을 스승을 폭행하는 재벌아들로 전락시켰어요. 진실을 은폐하는 언론은 어디까지나 정권에 종속되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알수 있었죠"라고 말한 박씨는 당시 학생들의 감정이 너무 고조되어 학생회 간 부들이 이를 저지하고 정권식씨를 데리고 나가던 모습을 왜곡보도했던 언론행태에 대한 실망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현재 시국을 보면 당시 6월의 상황을 떠올리게 해요. 하지만 학생들이 죽음으로 맞설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불의에 굴복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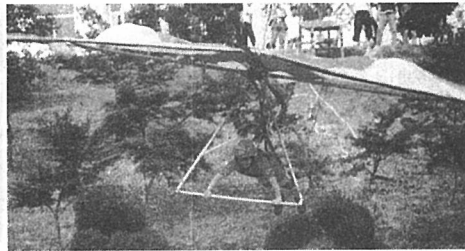
않고 투쟁했으면 좋았으리라"라며 외대생들의 죽음으로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다. 또한 "당시 만해도 외대 재단은 학생들의 등 돌음으로 재산을 증원하는데 급급했어요. 결국 이런 사립대학의 참패는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정부에게 책임이 있죠"라며 현 정권에서 교육정책을 비판한다.

"사립대학이 정권과 결탁하여 정원수 확충 등 여러 가지 방편으로 열악한 재정부문을 충당하는 현상을 감안할 때 학원 3주제로 일컬어지는 직원·학생·교수가 합심해서 외대발전에 힘을 쏟는 것, 이것이 곧 학원자주화라는 길이라 생각합니다"라며 박씨는 속스러운 표정으로 순수한 외대발전의 소망을 드러냈다.

전영수 기자

뜨거운 햇살 · 젊은 열의

통일왕산의 하나됨을 위해



이야 날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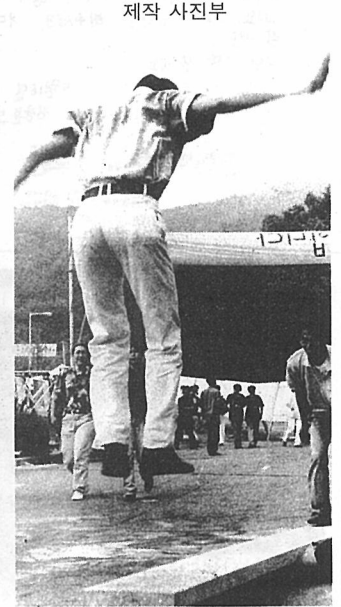
지난 5월 28일 본교 용인캠퍼스는 '새로운 시대, 희망의 청년, 우리는 왕산 공동체'라는 제목 아래 대동제를 개최했다. 4일간 계속된 이번 행사는 'FBS가오제' '국가보안법철폐'와 박정희 교수님 무죄석방을 위한 노래공연 '새내기 장기자랑' '외대인 노래자랑' 등의 본행사도 열렸다. 본 행사 외에도 부원별로 준비한 여러 행사가 열렸는데, 사진은 하늘사람이 준비한 헬글라이더 시승행사에 한 모습이다.

제작 사진부



결과

부원마다 행사에서 활약, 검토부등 체육동아리의 시범공연이 선보였는데 사진은 둘째날 열린 무예로의 격파시범으로 학생들이 열렬한 환호속에 진행되었다.



야, 왕산이 다 보이네

대동제 기간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는 민속놀이마당이 펼쳐졌다. 다양한 종류는 아니었지만 낯익고, 활소가 활남기들의 놀이가 진행되었고 학생회관 앞에서 진행된 강행하는 학우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대동의 마음 그려넣어요

이번 행사는 막기리만 가득하던 이전의 모습들과는 달리 다양한 구성과 무엇보다 즐거운 학우들의 참여로 예년에 비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또 다른 많은 학생들의 무관심은 이번 행사를 진정 왕산인들이 모두 함께하는 대동의 장이라고 하기는 어렵게 만들었다. 사진은 그림사랑 회원들이 학생회관 앞 광장에 대동제기인 바둑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교수님 너무나 보고싶습다

행사 이틀째인 5월 29일(수) 오후 노천극장에서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박정희 교수님 무죄석방을 위한 노래공연'이 열렸다. 꽃다지, 박학기, 최광재 등의 많은 노래패와, 김선명씨 등 정기수분들과 민가협 어머니들을 초청하는 등 주최측의 노력이 엿보이는 행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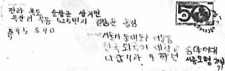
400여명이라는, 예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가하지 않은 점이 아쉽기는 했지만 참석한 학생들에게 국보법의 부당성을 바로 인식시키는 좋은 기회였다.

편지글 · 순창에서 상훈이가 중오형에게

중오형에게
오늘 학교에 갈 때는 반바지와 반팔을
입었어요. 그 반팔 밑에서 더워진거죠.
옆에는 물과 나무가 무성하고 눈송이처럼 어린
들은 잔잔 내뿜는 물사정처럼입니다.
중오형! 거만 소식이 있어요. 현재는 누나가
오늘 오산에 또한 던지기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 수비대는 뭘 듯이 기뻐요.
형! 저는 공부 끝내고 친구들과 놀고있고 있어
요.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을 즐겁게 해
드릴게요.
형은 어떻게 지내세요?
별리 여름이 와서 형들을 만났으면 좋겠어
요. 형들이 공부를 가르쳐 주면 좋겠어.
라는 내린도 더 형들을 기다려요.
형이 주신 선물과 여름포도 잘 가지고 있
어요. 지난 밤에 형들을 못 만나고
그날 가 버려서 많이 서운 했어요.
형! 보고 있어요.
여름 반과 메! 꼭 오세요. 작년에
왔던 대학생 형들처럼 아침에서
계몽, 목욕, 노래도 댄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섯 만날 때까지 제 생각 많이 하고
오세요. 그리고 감정도 해주세요. 기다
릴게요.
그럼 그만 쓸게요

5월16일
김상훈 드림



해의연수를 다녀와서 필리핀

만족스런 언어연수를 부르는 필리핀의 유혹

그렇지요. 즐겁기 때문이요. 높아진 지세요. 온
누리 보일 거예요. 집합소 있으면 보이는 건 그걸
뿐이에요. 하늘 푸르러도 푸르다 해나기란 두 눈
먼 거처럼 어려운 일일 거예요. 힘이 있거든 그
리로 가세요. 늦지 않아요.

신동엽의 '힘이 있거든 그러려 가세요' 중에서

필리핀이 주는 첫인상은 그야말로 상상이상의
부정적인 면만이 부각된다. 해외 언어연수를 꿈꾸
는 사람들은 언어 정복뿐만 아니라 한 문화권의 경
험까지 추구하곤 하는데, 필리핀으로 돌리지는 않
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필리핀은 유난히 가난하고 지저분한 나라로
인식되는 것이다. 둘째, 언어연수지의 수성은 선
진문화와 언어 두가지를 모두 잡겠다는 욕심을 채
우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셋째, 필리핀은 사
회·경제·정치 불안의 표본국으로 잘 알려져 있
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르코스로 대변되는 필리
핀의 독재와 부패를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경제와
소매치기, 강도, 살인에 기인한 치안부재와 쿠데타
로 대변되는 정치에 대한 불안감은 언어연수자에게
커다란 버거움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사실은 위의 이러한 편견과 가치는 우리
나라보다 부유하지 못한 나라에 대한 문화, 경제적
우월주의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나예가 있어 90년
간의 단기 언어연수의 장소로는 최고의 만족을 얻
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필리핀은 확실히 후진국
이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도, 실현으로
의지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필리핀은 90여년을
스페인, 미국, 일본 등의 식민정권에 시달렸을지라
도 아시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자 1950년대 한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가장 근대화된 선진국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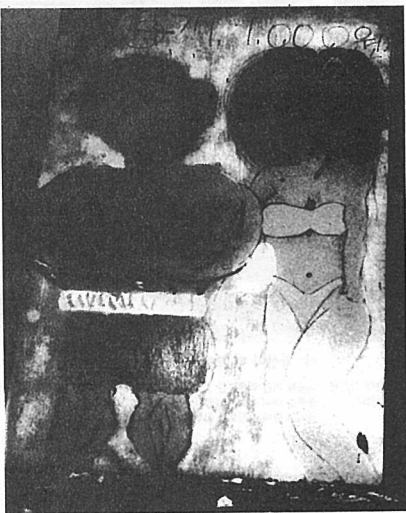


지망했던 부활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다.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멕시코의 4개 문화가 융화된 다양
하고 풍부한 경험을 간직한 숙련된 노동자와 지식
인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 그들의 미래는 그래서
결코 없지만은 않다. 후진국답지 않은 후진국, 내
가 살았던 베트남 마닐라의 쿠바오시는 한때 필리
핀의 수도였으며 다른곳에서 볼 수 없는 고급빌딩
기와 고급주택가로 유명하다. 곳곳에 큰 쇼핑몰이
가 있는가 하면 일용품이나 야채, 과일을 여기저기
진열해 놓은 시장이 있다. 커피지는 소문과 엄청난
배기가스, 교통재중, 그리고 더위는 분명 식민지
정권의 희생양이며 선진지본 선진국에서 후발지
본후진국으로의 변모를 기해 집적해 하고도 남음이
있다. 필리핀의 언어는 그들의 원시적 언어인 타갈
로그와 영어가 공식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영

어는 영국, 미국 다음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
고 분방 그들의 언어는 미국어와는 달리 딱딱
하고 건조하며 억양에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 이
런점 때문에 어떤이는 필리핀으로의 연수는 무의미
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예네오 같은 세계 100
위권권에 드는 유수의 대학, 사립대학가는 이미 한
국인으로 가득하다. 또한 대화와 사립학원은 수련
방식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연수
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은 우리학교와 언어연수제
도와 비슷하다. 반면 사립학원은 자선으로 분류기
속의 일대일 수업방식이다. 외국어를 습득하고 속
달하려는 아이에게는 필요충분조건 그 이상의 효과와
의미를 지니는 일만 사립학원의 일대일 수업은
언어연수의 배미점의 백미라야 하겠다. 언어에
관한 전반적인 것들, 특히 자신의 단점들에 대

한 개인교수들의 지시적 정도의 정성과 기르침은
그만큼 일대일 수업은 귀중하고 특하니 영어 초보
자에게 매력적인 요소다. 나의 경우엔 선생이었던
라벨은 수업시간에 내반이나 눈물을 보였을 정도
로 나의 격렬한 토론은 영어의 시작이었고 언어연수
생의 출발이었다. 알뜰한 수업이기에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 반반과 효과는 미국, 영국, 캐나
다 그리고 호주를 비롯한 영어권에서는 결코 비교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쟁사회이기때문에 사실
학원의 선생들 또한 미국식 발음에 철저하다. 그들
스터디는 정원이 많이 넘지 않으며 그 가격들과
수준은 만족스럽다. 남은 시간이나 쉬는 시간은 최
대한 선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TV는 고정채널 8개에 미국방송 4개를 그대로 사용
하며 거의 24시간방송된다. 화려한 축제와 다채로
운 놀이, 순수 그 자체인 보라카이의 모래와 바다
그리고 평생 어려움으로 간직될 산호초, 스노클
링 등 취미 취하는 마닐라의 황혼, 산이 보이는
논이 산인 세계 8대 불가사의의 하나 만이스트라
에서 인간적 의지와 애제에 감동한 나는 그들의
친절과 티없는 남다른 필리핀 애정론자가 됐다. 단
지 고개길의 젊은 체류기간에 최하한의 효과적 연
어 학습이었고 독립적인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필리핀 유혹은 당연한 것이겠는지도 모른다. 빛 푸
른 달밤 논과 숲을 지나 푸실한 아우성 속 나의
대단한 활기를 해치고 그러고 보면 단시간 분방
할 수 있다. 단시간 얼마나 만족할 수 있는가
를!

조금사우
(서하·영아 3)



사진시집

지난 주 황산 대동계 물종
선 티트리기 행사에 등장
한 표적입니다.
지성이라 자처하면서 세
상의 상업주의 문화를 비
관하던 우리가 가끔씩 자
기도 모르게 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던 않은가 근심
해 봅니다.
무엇을 줄거야 할지 허둥
대는 우리를 봅니다.
-순결한 세상을 꿈꾸는
지성이 흐르는 단절의 장,
대동계에서-

정유정 기자

작은
외대 이야기

<11> 학부제.

한화모임 "해관" 95·96계 중



6월의 외대 달력

해	달	불	물	나무	쇠	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여름	방학	입학	니	다!	

그해, 6·7월의 외대는...

1961 전교생 교복 착용.
학정에서는 전교생에게 교복착용을 결정했다. 남
학생 학의는 흰색셔츠에 넥타이 금지, 여학생은 흰
색 블라우스에 끈이거나 목욕치마를 착용토록했고
모두 왼쪽 가슴에 뱃지를 달도록 했었다.

1975 학도 호국단 발대식
공교부의 학도 호국단 성
치령에 따라 7개 부위로
구성된 학도 호국단이 본
교에 설치되었다. 군복착
재하에서 학생의 자치권
확립을 위한 도구로 사용
되었다.

임수정 발탁
용인캠퍼스 본교와 임수정장이 제3기 전대학
대표로 평양출연에 참가하기 위해 발탁되었
다.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
고 한 민족의 통일방향을 불러일으켰다.

1991 국무총리서리에
대한 형의
본교를 방문한 정한식 국무
총리서리에 대해 지난해 내
전교생과 학교로 답례편
을 올으며 제관과 일가족
세를 파견하는 등 격렬한
했다. 이 사건은 언론의 제
국보도로 인해 정치적으로
이후되어있으며 관련학생
들이 정확한 책임이 법적
되었다.

1989